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주일예배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7월의 선교사(조성우)를 위한 기도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찬 8)

사랑을 구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내려놓음

내가 천사의 말 한다해도

사도행전 17:1-9

참 아름다와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찬 490)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7월의 선교사는 조성우 선교사(러시아)입니다.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 다음주일(7/11)부터 6주간 오후 1시 친교실에서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7/24(토)부터 9/11(토)까지 8주간 2021 Back to school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손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온 교인의 기도로 서포트 받는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 큐티책 7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박순정)
6. 이번 주에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교회 짐을 모두 옮겨야 합니다. 참여 가능한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양명철)
7. 새 예배당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용허가를 받아 속히 입당하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8.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며칠 전, 7월 2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벌써 이전부터 OECD가입국이고 무역량 기준 세계 10위 이내였기에, 이제는 선진국 수준이라는 말을 들어왔던 한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전세계의 인정받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구 언론들은 대한민국은 이제 분명한 선진국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지위 변경으로 인해 이제는 대한민국이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64년 이 기구가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후진국, 이른바 개도국이 선진국이 되는 일은 1964년 이후 한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2차대전 이후 정부가 새롭게 수립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신생국들은 대부분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조 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된 것은 2차대전 이후 딱 한 나라만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36년간의 일제 강점기 동안 인적, 물적인 엄청난 수탈을 당하고, 해방 후 바로 터진 625전쟁으로 나라가 몰락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우리도 필리핀처럼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중동에 노동 인력으로,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베트남 파병으로 목숨값으로 처절하게 세워야만 했던 나라였습니다.

미군 참전 용사가 한국정부의 초대를 받고 발전한 한국을 방문하여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아무 것도 없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 할 수가 있나 놀라서 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결과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다는 것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정부가 한국의 선진국 지위를 축하하며 “대한민국은 모든 개도국의 희망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흔히 하는 말로 국뽕이 차올라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